

배당소득 과세 완화에 코스피 반등…금융주 강세

3.02% 상승 '4073.24' 마감

증권 6.54%·보험 4.08% ↑

美 섀다운 해제 기대감도

코스피가 당정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방침과 미국 정부의 섀다운(일시 업무 정지) 종료 기대감 속에 3% 가량 상승해 4070선을 회복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19.48p(3.02%) 오른 4073.24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38.11p(0.96%) 오른 3991.87로 시작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시장에서 기관은 1조308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552억원, 1조1605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한 주간 팔자에 나섰던 외국인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행판에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9.48p(3.02%) 오른 4073.24로 마감했다.

한남

이날 순매수세로 돌아서는 듯했으나 장 후반 매물을 쏟아내며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증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5%로 추가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하기로 하면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섀다운 해제에 압박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세에 속도가 붙었다. 겹치기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이 대부분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2.76% 오른 10만600원, SK하이닉스는 4.48% 오른 60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G에너지솔루션(0.43%), 현대차(2.46%), 두산에너지(2.18%), 한화 에어로스페이스(4.55%) 등도 올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소식에 KB금융(4.28%), 신한지주(1.81%), 하나금융지주(4.57%) 등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증권(6.54%), 보험(4.08%)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전기·가스(4.45%), 유통(3.68%), 전기·전자(3.23%), 운송장비·부품(3.27%) 등 대부분 종목이 올랐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38.11p(0.96%) 오른 3991.87로 장을 마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6조5298억원, 8조1139억원이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5원 내린 1451.4원을 기록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강태일 신임 광주세관장 취임

“수출기업 지원 총력…무역환경 선제 대응”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일 취임한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사진)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는 무역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해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절단 감세장비 등을 활용해 마약과 총기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세정 정보협력국장, 세계관세기구(WCO) 능력배양국장, 대구본부세관장 등을 역임했다. 강 세관장은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행정고시 37회로 지난 1994년 공직에 입문해 관세평가분류원장, 관

올해 3분기 수출액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효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수출액은 1850억달러로 전년 동기(1736억달러) 대비 6.5% 증가했다.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수출액은 지난 2분기(2.1%)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분기까지는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었지만, 반도체 수출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수출 기업 수는 지난해 3분기(6만 6802개)보다 4.5% 늘어난 6만9808개였다.

재화 성질별로 보면 반도체가 주를 이루는 자본재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1.2% 늘어 111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소비재 수출액

■ 국가데이터처,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발표



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겪고 4.9% 증가한 239억달러로 집계됐다.

미·중 수출은 줄었으나 유럽에는 전가자 수출, 독립국가연합(CIS)에는 중고차 수출이 각각 늘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원자재 수출액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철강 및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1.9% 줄어든 500억달러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1223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대기업 수출은 원자재와 소비재에서 줄었지만, 자본재에서 늘어난 영향이 컸다.

중견기업은 자본재·소비재·원자재 수출이 고루 늘어 7.0% 증가한 323억 달러였다. 역시 역대 최대 수출액이다. 대기업은 반도체, 중견기업은 반도체 부품·장비 수출 증가의 영향이 크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1850억달러…전년비 6.5% ↑

자본재 1110억달러 증가 영향

중소기업도 소비재·원자재·자본재 순으로 늘어나 수출액이 11.9% 증가한 238억달러였다.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이며, 전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기업·중견기업 수출액은 2분기 연속, 중소기업은 7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 수출이 늘면서 상위 10개 기업의 수출액 비중을 뜻하는 무역 집중도는 1년 전보다 2.6%p 증가한 40.0%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상위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전년 동기 대비 0.2%p 하락한 67.6%였다.

대미 수출액은 3.9% 감소한 293억달러로, 2023년 3분기(283억달러) 이후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밑돌았다. 3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다.

3분기 수입액은 1624억달러로 1년 전보다 1.5% 늘었다. 수입액은 대기업(-0.9%)에서는 줄었지만 중견기업(4.6%), 중소기업(8.5%)에서는 늘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농협, ‘신뢰 회복·경영위기 극복’ 전면 인적 쇄신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 발표…내달 즉시 적용

농협중앙회가 범농협의 신뢰 회복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다.

농협은 10일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책임경영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개편이다.

농협은 강력한 인적 쇄신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은 물론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경영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임원 인사 원칙을 확립했다. 이

를 통해 조직 전체에 성과·책임 중심의 경영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적 쇄신 적용 대상은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과 집행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신규 임원 선임 시에는 내부승진자 및 외부전문가 영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최근 논란이 됐던 퇴직 후 경력단절자에 대한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농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위메프 결국 파산…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만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판재인은 임대업 변호사로 정해졌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기업 회생 절

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해양에너지는 최근 광주 동구 학동 아남아파트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시본부, 한국열관리사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동남고객센터와 함께 보일러 안전점검 및 일산화탄소(CO) 경보기 600대 무상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주)해양에너지, CO경보기 600대 무상설치 지원

6년간 2560대 보급…동절기 중독사고 예방

㈜해양에너지는 최근 광주 동구 학동 아남아파트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시본부, 한국열관리사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동남고객센터와 함께 보일러 안전점검 및 일산화탄소(CO) 경보기 600대 무상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동절기를 앞두고 보일러

사용 증가로 인한 가스사고 및 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설치 지원사업과 점검활동을 시행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13건 중 12건이 CO 중독사고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해양에너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지난 6년간 총 2560여대의 CO 경보기를 무상 보급했다.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철저한 안전점검과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CO 중독사고를 예방하겠다”며 “해양에너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가스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GICON ‘정보보호 해커톤 대회’

지역 대학생 22개팀 79명 참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2025 호남지역 정보보호 해커톤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최하고, GICON과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참가자들은 웹 해킹, 포렌식, 리버시 등 총 6개 분야 25개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며 점수를 획득하는 캡처 더 플래그(CTF) 방식으로 경쟁했다. 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정보보호지원센터, 전남대학교 정보보호 특성화대학원사업단이 문제 풀이 플랫폼 제공 등 대회 운영을 지원하며 행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공모는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간 진행됐으며, 호남지역 대학생 22개팀 79명이 최종 참가해 정보보호 실력을 겨뤘다. 대회는 △1일차 팀별 문제 해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CTF 방식 △2일차 주요 문제 풀이 해설을 통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대회 결과 ‘내 나 좋아하는거 IDA’팀이 1위를 차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승훈 기자